

광주서 대학 양궁 최고 공사가 가린다



지난해 광주여대 잔디구장에서 열린 '광주여대 총장기 한국대학양궁선수권 대회' 출전자들이 활을 쓰고 있다. <광주여대 제공>

광주여대 총장기대회 오늘 개막 19개 대학 선수 220여명 참가 전국체전 앞둔 마지막 실전무대 10개 부문서 금메달 놓고 경쟁

국내 대학양궁 최고 팀과 공사를 가리는 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여대 총장기 제25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 대회'가 15일부터 나흘간 광주여대 잔디구장에서 개최된다. 차세대 한국 양궁을 이끌어 전국 19개 대학과

22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리커브와 컴파운드 부문에서 남녀 개인, 단체전과 사도별 남녀선수 1명씩이 출전하는 혼성전 등 모두 10개 부문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울산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실전 무대다. 세계랭킹 1위 안산이 모교 광주여대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 광주여대 전 교직원들은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는 공부와 훈련을 병행하는 대학생 선수들의 훈련 성과를 점검하는 무대다. 선수 화합의 장으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매년 우수한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 한국양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선재 한국대학양궁연맹 회장(광주여대 총장)은 "젊은 지성을 대표하는 대회이니 만큼 선수들 모두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지·덕·체 균형 있는 발전으로 선배들의 영광을 잇는 국가대표 선수로, 연구하는 지도자로, 능력 있고 리더십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제 역할을 다해달라"며 "경쟁과 승패를 떠나 양궁과 함께 이어 온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이 '광주 공동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더욱 국경히 자리매김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의 스포츠 이슈를 논하다'

광주전남체육학회 오늘 조선대 e스포츠경기장서 학술대회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유치 전략·AI시대 스포츠 미래 조망

광주·대구 아시안 게임 유치 등 광주·전남 스포츠 현안을 점검하고 AI시대 스포츠 미래를 조망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광주전남체육학회(회장 윤오남·사진)가 '광주·전남의 스포츠 이슈를 논하다'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15일 조선대학교 e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체육 분야에서 학문적 지식을 축적하고, 체육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술대회에서는 스포츠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 발표를 한다.



확보 및 공식화, 광주형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추진, 경기장 시설의 리뉴얼 표준모델 제시 방안, AI와 스포츠가 결합된 K-스마트경기장 구축 방안, 광주의 특화산업을 활용한 스포츠이벤트 등을 제시하고 중점 논의한다.

'광주·전남 스포츠의 AI시대를 논하다'(전남대 김영관 교수), '2038 아시안게임 광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조선대 김민철 교수), '광주·전남 스포츠클럽의 발전전략'(목포대 김선희 교수) 등이다. 김민철 교수는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전략 방안으로 대회명칭

한편, 광주전남체육학회와 조선대학교스포츠과학연구소,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남도체육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조선대 민영돈 총장, 광주·전남 체육단체장과 임직원,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광주전남 지역 체육 관련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KOVO 유소년 배구교실 출신 첫 V리거 탄생

현대건설, 서가은 지명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진행하는 유소년 배구교실에서 사업 진행 10년 만에 처음으로 V리그 선수가 탄생했다. 연맹 사무국은 14일 "2라운드 2순위에 지명된 서가은은 연맹 유소년 배구교실에서 처음 배구를 시작해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발탁된 최초의 선수"라고 전했다. 연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2년부터 한국 프로배구 미래와 저변 확대를 위해 유소년 배구교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가은(18)은 2014년 유소년 배구교실에 참여했다. 당시 서울 신구초등학교에 파견됐던 이순열 현 유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장의 권유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서가은은 중계초등학교로 전학한 2015년부터 본격적인 배구 선수의 삶을 시작해 공격수로 중앙 여중, 강릉여고, 전주 근영여고에서 활약했다. 올해 춘계전국중고배구대회에서는 팀을 3위로 올리는 데 힘을 보태며 우수공격상을 수상했다. 이를 발판 삼아 서가은은 지난 5일 열린 여자부



여자 신인드래프트에서 현대건설 지명을 받은 서가은(오른쪽). /연합뉴스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현대건설의 지명을 받았다. 연맹 사무국은 "배구에 흥미를 느낀 초등학교생이 선수의 꿈을 실현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유소년이 배구를 시작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권순우, 세계 13위 오제알리아심 잡았지만...

데이비스컵 테니스 조별리그 한국, 캐나다에 1-2로 분패

한국 남자 테니스 대표팀이 세계 랭킹 13위 펠릭스 오제알리아심이 버틴 캐나다를 상대로 분투했지만 아쉽게 패했다. 박승규 감독(KDB산업은행)이 이끄는 한국 남자 테니스 대표팀은 14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2022 데이비스컵 테니스 파이널스 조별리그(2단 1복식) B조 1차전 캐나다와 경기에서 1-2로 졌다. 남자 테니스 국가대표인 데이비스컵 파이널스는 세계 16강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상위 2개국씩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981년과 1987년, 2008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로 세계 16강인 파이널스(옛 월드컵)에 진출한 우리나라는 캐나다, 세르비아, 스페인과 함께 B조에 편성됐다. 한국은 2단식에 출전한 애이스 권순우(74위·당진시청)가 세계 랭킹 13위 오제알리아심을 2-0(7-6(7-5) 6-3)으로 꺾었으나 1단식과 복식에서 패해 분패를 삼겼다. 1단식과 복식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쳤기에 아쉬움이 더했다. 1단식에 나선 홍성찬(467위·세종시청)이 배식 포스피실(141위)을 상대로 1-2(6-4 1-6 6-7(5-7))로 졌다. 복식에 출전한 송민규(복식 223위·KDB산업은행)-남지성(복식 234위·세종시청) 조 역시 오제알리아심(복식 194위)-포스피실 조에 3세트 게임 스코어 3-1까지 앞서다가 내리 5게임을 내주고



14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2022 데이비스컵 테니스 파이널스 조별리그에서 권순우가 캐나다의 오제알리아심을 꺾고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1-2(5-7 7-5 3-6)로 패했다. 우리나라는 이날 아쉽게 졌지만 권순우는 세계 랭킹 10위권대 선수를 상대로 처음 승리를 따냈다. 이전까지 권순우가 꺾은 최고 랭킹 선수는 2019년 루카 푸유(프랑스), 2020년 두산 라요비치(세르비아)로 당시 두 선수의 세계 랭킹은 모두 24위였다. 권순우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1세트 초반 0-3

으로 끌려갔는데 이후 상대에게 적응하면서 공격적으로 풀어진 것이 주효했다"며 "오늘 국가대표 전이어서 간절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랭킹이 파이널스 국가 가운데 가장 낮지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며 "첫 경기에 어려운 상대와 겨뤘지만 자신감을 더 얻었다"고 남은 경기 선전을 다짐했다. 우리나라는 한국 시간으로 15일 밤 11시 세르비아와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삼성생명, WNBA 출신 스미스 1순위 지명 예약

여자프로농구 16일 신인 드래프트

여자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가 16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다. 주목을 받고 있는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1순위는 누가 될 것인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드래프트는 경우가 다르다. 1순위 지명권을 이미 확보한 용인 삼성생명이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출신 선수를 '1순위로 지명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1순위의 영예를 사실상 '예약'한 주인공은 WNBA 로스앤젤레스 스파르칸스 소속의 가드 키아나 스미스(23·183cm)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현역 'WNBA 리거'가 한국 여자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 나오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최원진 씨)가 한국 출신

이기 때문이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외국 국적을 가진 해외 활동자로서 부모 중 최소 1인이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선수로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등록한 적이 없는 선수'의 드래프트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 W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6순위로 LA에 지명된 스미스는 2022시즌 11경기에서 2.6점을 기록했다. WKBL에서 지금까지 교포 선수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김한별(BNK)에 비해서도 훨씬 좋은 경력을 지닌 선수라는 점에서 리그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평가 나온다. 특히 한국 국적을 얻으면 국가대표로도 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에서 활약도 기대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공조2: 인터내셔널
2관	공조2: 인터내셔널
3관	드래곤볼 슈퍼: 슈퍼 히어로, 9명의 번역가
4관	육사오(6/45)
5관	공조2: 인터내셔널
6관	공조2: 인터내셔널
9관	공조2: 인터내셔널, 극장판 엄마 까투리: 도시로 간 까투리 가족
7관 씨네캐슬	오 마이 고스트, 한산: 용의 출현
8관 씨네캐슬	헌트, 블랙폰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 II
2인 가극 아파트

일시 : 2022. 9. 19.(월) 19:30
장소 : 광주공영마루
문의 : 062-613-8235

광주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주회
가을저편

일시 : 2022. 10. 12.(수)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5